

## 원판형 연골의 치료 후 결과

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동철 · 손옥진 · 허재희

### 목 적

원판형 연골 치료후 연령, 수술 방법, 동반 손상의 유무, 파열 양상, 외상력 유무에 따른 수술 전, 후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고,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.

### 대상 및 방법

1995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관절경 시행상 원판형 연골로 진단 받고 치료받은 30명, 32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중 남자가 21예, 여자가 11예였으며, 우측 슬관절이 18예, 좌측 슬관절이 14예로 전 예에서 외측 슬관절이었다. 평균 연령은 29.3(11~59세)세였으며, 임상적 평가는 Lysholm 점수를 이용하여 수술 전, 후를 평가하였다.

### 결 과

1. 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은 15예,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은 5예, 후방 경골부위 부착연 결여로 인한 아전 절제술 5예, 보존적 치료 7예를 실시하여 Lysholm 점수상 양호 이상이 26예(81%)로 나타났다.

2. Watanabe 분류상 완전형이 19예, 불완전형이 13예였으며, Wrisberg 형은 없었다. 완전형과 불완전형 양군에서 수술 전, 후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.

3. 환자의 연령 분류상 30세 이하군이 30세 이상군에 비해 수술 후 Lysholm 점수의 높은 호전정도를 보였다. 파열 형태에 상관없이 최종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. 인대 및 연골판 파열, 골절과 동반된 군에서 Lysholm 점수의 호전 정도가 컸다.

4. 1예에서 혈전성 정맥염의 합병증이 관찰되었다.

### 결 론

증상이 있는 원판형 연골을 부분 및 아전 절제술을 실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. 원판형 연골의 형태, 치료방법의 차이, 파열 양상등과 임상적 결과는 최종 추시시 큰 차이가 없었으며, 나이, 동반손상 여부가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거나 증례의 추가 및 장기적 추시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.